

## 55명 캄보디아 선교단, 의료 및 문화선교 펼쳐 바탐방에서 900명, 축에서 1200명 치료



캄보디아 축지역에서 치과치료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단기의료선교가 진행되었다. 이번 단기 선교의 목적은 이 곳에서의 의료선교가 교회 해외선교위원회의 정책에 부응함으로써, 향후 본 교회의 해외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문화선교가 해외선교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본 교회의 리더들도 선교단에 직접 참여, 혹은 신앙적 및 기능적 지원을 통해 헌신하는 큰 행사가 되었다. 본 선교를 위해, 지난 4월에 캄보디아 단기선교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권오승 장로(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를 선교단장 및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준비위원회에서는 단기선교를 두 곳에서 동시에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교회에서 파송한 이성민 선교사의 축 지역(팀장: 박호길 장로)과 새로운 지역으로서 윤구행 목사의 바탐방 지역(팀장: 서준규 집사)으로 정하였다. 인원은 축 지역 27명, 바탐방 지역 28명으로서, 총 55명이 선교에 참가하였다. 축 지역팀(8월 2일-9일)은 의료선교를 위주로 사역하였고,

이와 관련된 지원행사를 곁들여 1130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바탐방 지역팀(8월 1일-8일)은 의료선교와 청년중심의 문화선교를 각각 시행하였으며, 926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1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련회 행사를 가졌다. 본 단기선교단은 의료선교를 통해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선교도 이와 잘 접목하면 바람직한 선교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선교단은 기존의 현지 선교사의 선교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또한, 또 다른 지역의 현지 교회의 선교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해외선교의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되었다. 본 선교사역을 통해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는 여러 세대, 특히, 청년들이 참가하여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비전이 우리 청년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발견함에 있다.  
/서준규집사(의료선교부장)

### 장애인 시설에 사랑과 관심 베풀어

금년 6월에 탐방한 후 지원을 시작한 장애인 시설 '살롬의 집'은 책정액 지원 외에 지원 소식을 알게 된 주님의교회 집사들이 3회(월 1회)에 걸쳐 음식(삼계탕, 통닭, 씨레이션, 수박 등)과 의약품(소화제, 연고류 등 각종 상비약)을 제공해 주시는 등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집사에게 감사드리고 無名이기를 원하시는 관제로 성함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연초 지원 요청이 있었던 부산지역 교회(동지, 한마음)는 8월 8일 탐방 완료했다. 이번 주일(8월 15일)에는 선교위원회 회의 시 탐방결과를 보고하고 지원여부,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현황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지원대상 대안학교 검토할 예정이다. 여건이 구비되면 9월 중에 탐방하게 된다.

###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썩트네” 많이 오세요

주님의 교회 새싹들의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썩트네'가 8월 22일 9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유아부실에서 열린다. 물론 도우미 이모 삼촌들과도 함께 한다. 먼저 어린이들은 썩트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부모님들은 어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 10시 30분부터 진짜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썩트네'가 시작하게 된다.  
(4면에서 계속)

### 통합아동부 RainBow 미니 올림픽

### 아이들이 공중에 떴어요



올림픽'을 열었다. 예배가 끝난 후, 운동장으로 나가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한 게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얼음 전달하기, 수박먹기 게임, 줄넘기, 미니 축구와 미니 피구, 릴레이 달리기와 물풍선 던지기 게임 등, 게임의 각 순서마다 '뽀뽀 뽀뽀 뽀뽀'를 외치며 즐겁게 뛰어 노는 모습이 천국에 온 아이들 같이 느껴졌다. 교사들과 아이

들이 함께 어울려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며 더없이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뒷처리까지 깔끔히 끝내고 가진 점심식사는 정말 꿀맛이었다. 점심을 먹은 후, 오후 시간에는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러 가자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고, 4가지 색지를 통해 천국과 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에 대한 이미지를 인지하고 소그룹활동을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시원한 음료수와 많은 먹을거리를 준비해주시며 뒤에서 섬겨주신 교사들, 특히 이번 '미니올림픽'을 위해 자원봉사로 섬겨주신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마다 개입해주시고, 날씨를 주장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주시며, 새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청년부, 봉사활동 떠나

### 15일에 충주시 베다니 장로교회로

청년1,2부는 오늘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동안 농촌봉사활동을 떠난다. 가는 인원은 35명 내외로 봉사활동을 준비하는데 있어 먼저 8월 매일 저녁시간에 모여 예절실에서 기도모임을 가져왔고 중국선교여행 떠난 청년들을 위한 기도도 병행해왔다.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임원들은 시장을 헤매고 다녔다 한다. 농촌 봉사할 곳은 충북 충주시 베다니 장로교회이다. 청년은 이곳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면서 나눌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오게 된다.



### 초등부 여름수련회

지난 7월 29일부터 7월31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초등부의 여름수련회가 은혜가운데 열렸다. 쾌적하고 평안한 양평관광농원에서 초등부 80명과 교사,학부모 23명 등 총 103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를 품는 아이들"이라는 주제의 천국잔치한마당을 펼쳤다.  
(2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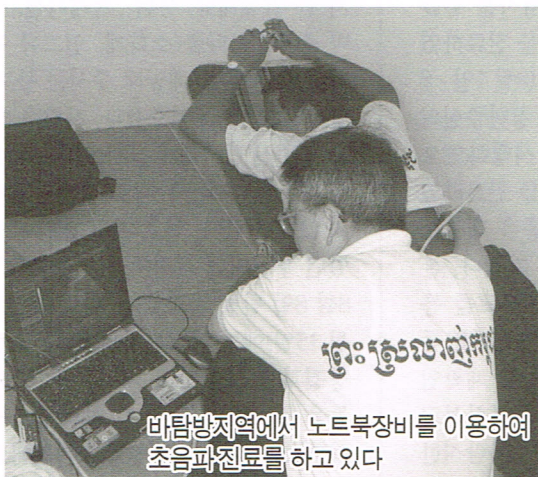
캄보디아 단기선교 후기

# 캄보디아 의료선교, 오병이어를 기대하며

“주님앞에서 캄보디아인과 우리는 차이가 없었다”

캄보디아의 한 오지 속에 도착한 것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한지 11시간.

그곳 시간으로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캄보디아 프놈펜까지 직항노선이 있었다면 5시간 거리, 버스로 3시간 남짓 여정인데 그곳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지켜보았던 캄보디아의 어렵고 낙후된 모습이 실제의 거리보다 더 멀리 느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축으로부터 한시간 정도 떨어진 캄푸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8월 3일

축의 선교센터에 도착한 것은 9시. 그곳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환영을 받았다. 우리일들 돕기 위해 의치대생, 약대생들과 일반 대학생들이 어시스턴트로 많

이 나와 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기다리는 환자들을 진료하기위해 서둘러 찬양과 기도를 마친 뒤 짐을 풀고 진료 및 문화사역을 시작했다. 내과 소아과 정신과 비뇨기와 치과 그리고 한방의료진이 환자를 보았고 바깥마당에서는 풍선아트와 포토아트 그리고 미용작업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이어졌다.

8월 4일

전날과 마찬가지로 일정이 이어졌고 오전과 오후진료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다.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캄보디아마을을 방문한 것이다. 오토바이가 끄는(1-2인용이 아닌) 수레 두 대에 나눠 타고 30분쯤 들어가 우리는 끄랑마당과 트로베암룩이라는 마을에 갔다. 학교와 교회로 모두 사용되는 곳에 마을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어른 아이할 것 없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이 찬양했고 우리도 찬양했다. 그들이 기도했고 우리도 함께 했다. 정말 주님앞에서 캄보디아인과 우리는 차이가 없었다. 서로 반가워 하고 즐거워했고 무엇이든 나누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가져간 수건과 물건을 성경찬송을 드리고 우리는 야자열매를 하나씩 받아들었다. 그들의 땀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다. 무엇을 주는 입장이 이미 아니었다. 서로에게 나누는 마음이 오고가는 그런 사랑의 장이었다. 마음가득 사랑과 기쁨을 담고 돌아와 오후사역을 했다. 어제보다 환자도 많았고 힘도 들었을 텐데 그래도 마음이 기뻐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힘이 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8월 5일

의료문화사역 마지막 날이었다. 이제 일이 손에 익을 참인데 하는 아쉬움, 그리고 한명이라도 더...라는 생각으로 어느 때 보다도 손길이 빨라지고 마음이 분주했다. 오전일을 마치고 우리와 3일간 같이 일하며 우리를 도운 캄보디아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그간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들이 있었기에 캄보디아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잘 전달되었을 것이다. 또한 자기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그들에게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이야말로 미래의 캄보디아를 짊어질 사람들이었다. 한편 이날 오전 바탕방에서 축팀으로 합류하신 권장로님을 비롯한 세분의 장로님들이 암송하지 한마리를 선물로 가지고 뽀레이스바우지역 군립병원을 방문해서 그들의 의료현장을 돌아보셨다. 병원상태가 너무나 열악하고 환자가 환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의료선교가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그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줘야한다는 신념을 더욱 강하게 갖는 계기가 되었다.

3일에 걸쳐 1100명이 넘는 환자를 보내주셨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질병의 고통을 들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며칠분의 약을 주는 것이었다. 진료에 참여한 여러 의사선생님들은 이러한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처치에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하신다. 또한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 캄보디아에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캄보디아에 의료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 김미현 집사

## “함께 한 시간들이 참 축복이었음에 감사”

### 축 지역 사역

저는 우리 딸 자영이와 접수를 담당하였습니다. 첫날 360명을 시작으로 총 1160명의 환자를 대하게 되었는데 증상을 자세히 물어 정확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각 과로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 다. 극심한 영양실조로 세살이지만 3kg밖에 안되는 아기도 있었고, 오른손을 뺨에 물리고도 2주일 이상 방치되어 잘못하면 불구가 될 수도 있을 여자 아이도 있었습니다. 체중은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3, 40kg대에 지나지 않는 참담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 평생 의료 혜택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쓰셨던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비뇨기과와 외과 파트를 맡아 열악한 상황에서나마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땀에 흠뻑 젖은 채 여러 처치로, 또 수술로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를 돕던 캄보디아 의대생 리프록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게 하심을 보며 그 안에 두신



참으로 귀한 성품을 새롭게 느끼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를 세 번째 방문하셔서 축의 의료팀장으로서 또 여러 실질적인 배려와 섬김이 아름다웠었던 박호길(내과) 장로님과 김운선 집사님, 혼자서 이가 버글대는 수백명의 머리를 손질해 주시며 “썸 쓰어 뽀레이 예수”(예수 믿으세요), “뽀레이 스톨란 네약”(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 시면서 시종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팀의 마스크트 윤숙 집사님, 이발한 아이들을 번쩍 안고 머리를 감기신 후 “이렇게 예뻐졌어요” 하며 활짝 웃으시던 이호 목사님. 또 사진으로, 풍선 아트로 그곳의 귀한 아이들을 기쁨으로 섬기셨던 박영란, 이혜선 집사님. 뒤에서 묵묵히 준비과정 부터의 모든 진행을 맡으시고

곳은일 찾아가며 비지땀을 흘리셨던 이진원 집사님. 함께 하시는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성백술 장로님. 하노이 공항에서 오리지날 쌀국수를 맛보게 하시고 간식, 과일 챙겨주시라,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도목 장로님, 강정혜 권사님. 특별히 각 과에서 내는 처방전에 따라 모든 약을 조제하느라 약사님을 도와 가장 늦게 까지 애쓰신 정영옥, 김미현, 조정숙 집사님과 황태은양. 주님의 교회 교인이 아니시면서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시며 동참하셨던 이현규, 김정은, 신동희 최은경, 오경선 선생님. 귀영동이 제환이. 모두모두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한 시간들이 참 축복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며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신 주님의 은혜로 보고 느끼고 가슴에 품게 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일시적인 은혜로만 잠시 느꼈다가 잊혀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한 우리 안에서의 나눔이 점차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임경희집사

(1면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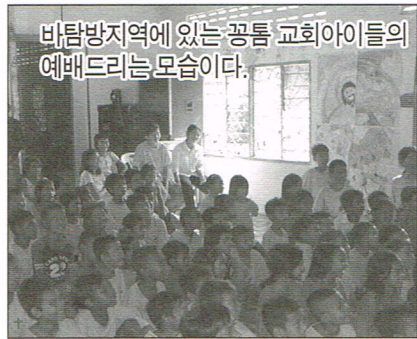
### 초등부 여름수련회

자국선교사를 직접초빙해 치룬 지구촌 선교센터, 추적놀이, 찬양과 율동,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한 물놀이와 미꾸라지잡기, 캠프파이어, 조별발표회시간들은 어느것 하나 놓칠수없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었다. 조별경쟁을 유도하면서 전체화합을 추구한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아이들은 서로를 알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축복받은 존재임을, 그리고 자신의 기도와 전도를 필요로 하는 이웃과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6주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했던 이번 수련회는 많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주님안에서 부족함없이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특별히 함께 참여하신 다섯분 학부모님의 섬김과 도움으로 더욱 값지고 의미깊은 수련회가 되었다.아이들의 교회학교수련회 참여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속에서 수련회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한다.



바탐방 지역 사역

## “주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사역”



시애틀에서 바탐방으로 가는 도중 버스가 고장나는 바람에 2시간가량 지체된 우리

는 서둘러 식사를 한후 예배를 드리고 문화사역팀이 사역할 "꿈틀" 교회로 이동했다. 이곳은 전기사정이 좋지않아 저녁에는 아이들이 모두 저녁에는 집에 가야하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시간은 오후 2-6시 정도였다. 우선은 준비한 축구공, 농구공을 가지고 교회로 떠났다. 의료사역하는 교회에서 버스로 거의 20분정도를 더 들어가야했다. 도착했을때 이미 수련회는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을 울동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우리도 캄보디아 아이들을 처음 접하였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인사를 했다.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우리들을 쳐다보았다. 우리의 긴장감은 단 순한 우려에 불과했다.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썩트네"라는 찬송으로 시작했는데, 반짝이는 눈으로 따라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했다. 밖에서는 함께 땀을 흘리면서 팀을 이루어 축구를 하였다. 이렇게 캄보디아 어린이들과의 수련회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자신감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얻게 되었다. 주님은 이 사역을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손길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단순했다. 찬양, 울동, 그리기활동, 축구 등과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풍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우리나라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였고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 3일동안 준비해간 일정을 따라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뿌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날에는 "세나무 이야기"라는 연극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연극을 보았다.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이 연극을 통해 그 아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울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전을 볼수 있었고, 장로님과 목사님의 겸손한 리더쉽에 감사드린다.

/강정연(청년2부 문화사역팀)

## ‘세계를 품는 아이들’

학부모 초청예배 드리고 오늘은 수련회

유년부는 8월 1일 주일 소예배실에서 학부모 초청예배를 드렸다. 약 200여명의 유년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평소에도 그렇게도 떠들던 아이들이 사뭇 진지하고도 집중을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다. 이 예배는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또 주안에서 한가족,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되었다. 학부모에게 아이들을 향한 교회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또한 여름 수련회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하기 위함이었다. 예배실을 예쁜 풍선으로 꾸미고 뽀빠리로 복장을 한 퀴즈맨이 등장하여 성경 퀴즈와 말씀 암송으로 예배로 인도해 갔다. 찬양을 인도하는 교사를 따라 울동과 찬양으로 부모도 유년부 어린이가 되어 힘

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열린 예배답게 누구나 참여하기에 기쁜 찬양이 되어 은혜로웠다. 전도사님이 전해 주시는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하나님 말씀도 교사 역활극을 통해 더욱 마음 깊이 새겨져 서로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아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전해져 왔다. 이어서 청년부의 초대극을 통하여 여름 수련회를 홍보하였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휴가를 따르지 않고 수련회를 꼭 가겠다고 해서 당황하였다는 후문도 있었다. 우동윤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며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17일(화)까지 경기도 안성 엄마 목장에서 열린다. 한달 간 수요일예배 전 6시 30분에 모여 기도모임을 가져왔다. '세계를 품는 아이들'이란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교사연극 '이디오피아의 아침'을 통해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려 한다. 세계민속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은 5개정도

의 나라를 선정해서 그 나라에 대해 문화를 체험하는 코너이다. 여러 의상이나 문화적인 것을 수집해서 열리는 이 코너는 이집트, 우즈베키스탄등을 다녀오신분들에게 후원받을 수 있었다. 각 반 이름도 나라 이름을 따고 교사는 미리 맡은 나라에 대한 사전정보도 얻어야 했다. 각 반별로 맡은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함께 기도하게 된다. 교사들은 수련회준비로 휴가도 없이 즐겁게 임하고 있다. 준비하는 과정속에도 학부모초청예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교사들은 아무것도 염려함 없이 힘차게 주님과 아이들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며 사역을 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 교회 소식

1. 담임목사는 7월19일부터 8월25일 까지 안식월입니다.
2. 9월18-20일의 세계기독교인 서울 대회 초청 외국 군인성도 민박신청을 자원봉사 데스크에서 받습니다.

(1면에 이어서)

##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썩트네” 많이 오세요

오전에는 부모님과 돌보미 이모 삼촌들이 서로를 더 잘 알도록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소그룹으로 '우리 아이들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그 뒤 바깥에 나가 물놀이나 비눗방울 놀이 중 하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맛있는 '냠냠' (점심) 시간이다. 오후에는 이모, 삼촌들이 심혈을 기울인 연극을 상연한다. 즐거운 게임과 체조를 한 후 끝나게 되는데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워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 이번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썩트네' 모임을 위해 돌보미 이모 삼촌들은 몇 차례나 따로 회의와 준비모임을 가졌다. 특히 지난 월요일에는 서울 시내 모스튜디오에서 이모, 삼촌들이 연극에 사용될 대사 녹음을 이미 마쳤다. 아주 고음질 녹음이 되었다는 재밌는 사실.

## 예루살렘 평화행진

현지 협조하에 무사히 마쳐

'2004 예루살렘 평화행진'이 계속된 논란과 우려 속에서도 사고없이 지난 10일 저녁 집회를 끝으로 중요일정을 마감하였다. 인터콥(본부장 최바울 선교사)과 예수전도단(대표 문희곤 목사)이 공동 주관한 이번 예루살렘 행진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및 재외 한국인 약 23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금번 예수행진의 중심행사로 기획되었던 예루살렘 외곽에서 베들레헴 예수탄생 기념광장까지 10km를 도보로 걸으며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는 현지 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위의 기사는 목회자신문(417호,8월14일자)에 실린 것을 발췌한 것이다. 2004 예루살렘 평화행진은 주님의교회 협력목사인 문희곤목사가 대표로 사역하는 예수전도단이 인터콥과 함께 공동 기획한 행사였으며, 참석자들은 12일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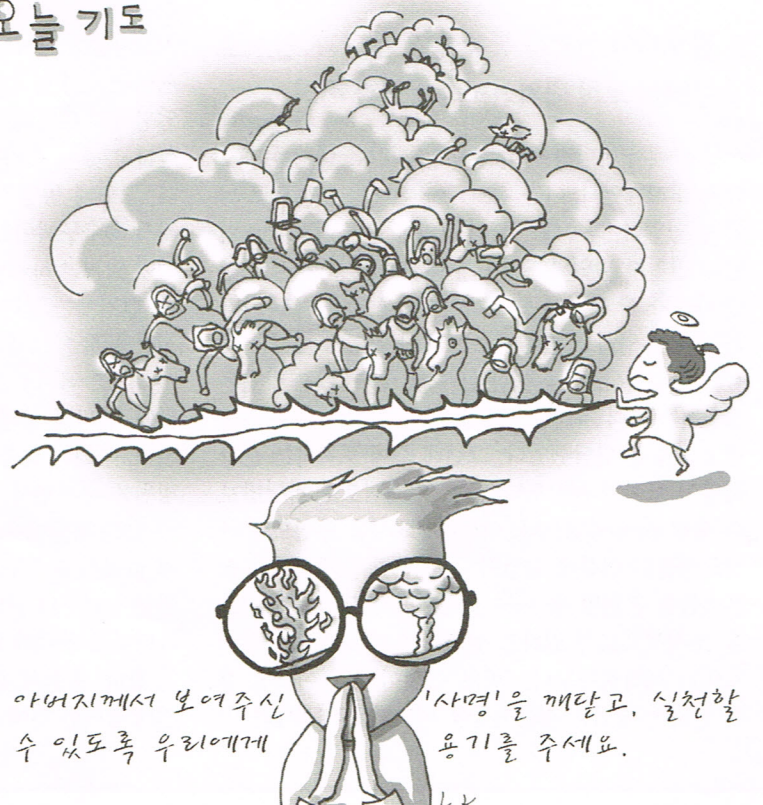
## 함글함을 월례회

함글함을 편집부가 7월 20일 월례회를 가졌다. 신선한 바람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물 맑고 공기 좋은 남한산성에서 열린 이번 월례회에는 편집부 기자들과 이창현 목사가 참석하여 식사를 함께 하고,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이날 특별히 최창섭 장로도 참석하여 좋은 말씀 들려주시어 은혜로운 시간을 더 빛내주셨다. 편집부원들은 조용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함글함을 신문을 펴내며 보람찼던 일이나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우리 편집부가 개선되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지난 활동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부족한 점도 많고 보충해야 할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로 하나님께 은혜 안에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자는 다짐을 끝으로 월례회를 마무리 했다. 주님의 교회 신문으로서 언제나 교인들에게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

식들을 전하고,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하나님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

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편집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오늘 기도



권오승 장로에게 듣는다

## 단기선교의 틀을 벗어나 체계적인 선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

### 1. 이번 캄보디아의료선교의 의의와 활약

의료선교가 주축이 되어 문화선교까지 함께 한 것에 이번 선교의 의의가 있다. 문화선교는 진료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수백 명의 현지인들에게 찬양이나 울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바탐방에서는 현지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 의료선교는 4년 전부터 캄푼 축 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작년에는 사스 때문에 못 가서 올해가 3번째인 셈이다. 바탐방에는 올해 처음 갔다. 저는 바탐방에서 3일을 보내고 택시를 타고 6시간을 달려서 축팀과 함께 다시 3일을 보냈다. 그래서 양쪽을 볼 수 있었다. 바탐방에서는 의료선교를 처음 하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반하여 축에서는 3년간의 축적된 경험이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축에는 이성민선교사가 9년동안 개척해서 섬겨 온 선교센터에서 의료선교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바탐방의 의료선교팀이 시골의원이 라면 축의 의료선교는 마치 종합병원처럼 느껴졌다. 바탐방에서는 900여명을 진료했고 축에서는 1200여명을 진료했다. 현지 선교사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통해서 사전에 진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표를 나눠주었는데 남의 표를 가져오거나 표 없이 와서 사정하는 사람도 많았다.



바탐방지역에서 진료순서를 기다리며  
접수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 2.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얻은 생각과, 앞으로 주님의 교회 해외선교의 방향과 비전

폭염 속에서 바탐방에서 축까지 6시간을 택시를 타고 다려 내려가면서, 나는 캄보디아 전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북쪽에는 산이 거의 없고 평야가 끝없이 넓어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까, 이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쌀을 수입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렇게 못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 저러한 생각으로 내 머리는 매우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었다. 그런데 축에 도착하는 순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축은 지리적으로 바탐방보다 훨씬 더 열악했으나, 이성민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의 헌신에 힘입어 축에 교회가 개척되고 젊은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센터가 세워져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섬기니까 이곳에서는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바로 이것이다. 이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젊은이들을 지도자로 키워내는 인

재양성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은 곧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교회의 목회비전과 연결되었다.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지는 비전이 우리 교회의 해외선교에도 그대로 관철될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다면 캄보디아가 아주 좋은 대상국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왜 굳이 캄보디아야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캄보디아는 20세기 후반에 Killing Field사건을 통하여 200만명의 학살이라고 하는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한 나라라는 점이고, 둘째로, 우리 주님의교회가 과송하여 캄보디아를 9년 동안 섬겨온 이성민선교사라고 하는 헌신된 지도자와 그가 키워 놓은 현지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료선교도 매년 의료기기와 약품을 넣은 이민 가방을 40여개나 싣고 가서 3-4일 동안 진료하고 돌아오는 단기선교의 틀을 벗어나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현지에 조그만 병원을 하나 설립하여 의료선교의 거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단기의료선교도 여름에만 갈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법률가, 기업가, 교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해외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3. 에피소드

선교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성민 선교사가 프놈펜에 개척한 교회에 들렀을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 간 지원금 말고 우리 선교단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뜻을 선교단원들에게 전하고 제 모자를 돌렸다. 그랬더니 780불이 모였는데, 그 돈은 이성민선교사를 도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지인 지도자(현재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의 지난 1년간 밀린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서 그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바탐방에서는 현지인교회에 나오는 자매의 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라도 받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병실을 방문했다. 그런데 병명은 임신중독에다가 말라리아까지 겹쳐서 속수무책이었다. 수술을 하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투석을 해야 하는데, 현지에는 그러한 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고 그러한 시설을 갖춘 병원은 프놈펜에 하나밖에 없는데, 프놈펜까지는 택시로 5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로 보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 설 수밖에 없었다. 병원을 나서면서, 우리는 한국에서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하거나 기술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번 단기선교단에는 가족단위로 참여한 교우들이 많았다. 매우 좋은 현상인 것 같다. 축팀의 김광일 집사는 정신과 의사로서 2년 전에 참여한 뒤에,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러한 현장을 보여 주고 싶어서 같이 왔다고 한다. 바탐방팀의 유승하 집사는 소아과 의사로서 따님이 국비장학금으로 미국유학을 가면서 아빠에게 해외선교를 가라고 권해서 가족과 함께 왔다고 하며, 치과 의사인 변춘섭 집사는 가족이 함께 와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바탐방팀에는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유창한 영어로 통역을 해 주어서 현지인 도움이들과 언어소통에 큰 기여를 하였다.

### 4. 교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선교단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탐방팀에서 우리 선교팀을 도우셨던 윤구행목사는 우리 선교단이 이렇게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선교해주는 것이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또 윤목사는 통상 단기선교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몇 명 왔다가 가는 정도인데, 주님의교회는 의료선교와 문화선교로 구성된 55명이라는 대규모의 선교팀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선교를 펼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캄보디아 선교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현지에서는 교회는 힘없고 못난 사람만 다니는 곳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부자나라에서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와서 환자들을 치료해주시 자 연 현지인들의 관심을 교회로 집중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는 굳이 그곳에 가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갔다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선교단은 주님의교회 이름으로 모든 교우들을 대표해서 현지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 선교에는 모든 교우들이 다 참여한 셈이다. 뒤에서 열심히 중보 기도해주신 분들, 선교비를 지원해 주신 당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헌금해 주신 교우들도 간접적으로 참여한 셈이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체험이 훨씬 더 좋다. 다음에는 보다 많은 교인들이 현지에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그곳을 섬기는 선교사 그리고 현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또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축지역에서 미용선교사역을 하고있다.